

사회

# “칼·해머·낫 휘둘러... 그들은 해적이었다”

### 화정우 어업관리원 끔찍했던 상황 밝혀 “中 불법조업 단속 바다 추락 죽는줄 알아”

“몸이 얼어붙을 듯한 차가운 바닷속에서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갑자기 목에 달린 휴대용 랜턴이 생각났고, 멀리 보이는 동료를 향해 흔들었어요.”

지난 30일 새벽 신안 해상에서 중국 어획물 운반선을 단속하던 과정에서 바다에 떨어진 뒤 극적으로 구조된 화정우(32·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씨. 그는 동료 4명과 방배와 3단봉을 들고 운반선에 올라섰다가 칼, 해머, 낫 등을 들고 마치 ‘해적’처럼 날뛰는 중국 선원들에게 밀려 철축 같은 바다에 빠졌다가 20여분만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불법조업 중 어선 니포 상황도

그러나 화씨 등이 배 오르자마자 10여 명의 중국 선원들의 완강한 저항을 시작했다. 선상에 덩치 큰 개를 풀어 단속원들의 진입을 막았고, 조타실 뒤에서는 주먹 크기의 돌을 던져야 단속원들이 이를 가까스로 막은 단속원들이 화씨는 중국 선원의 낫을 팔로 막으며 겨우 목숨을 건졌다. 화씨는 중국 선원의 낫을 팔로 막으며 겨우 목숨을 건졌다. 화씨는 중국 선원의 낫을 팔로 막으며 겨우 목숨을 건졌다.



지난 30일 새벽 신안 해상에서 72.4km 해상에서 목포해경 3009함 특공대원들이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단속요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중국 어부들을 제압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화정우(43)씨가 해머로 머리를 맞아 실신하는 등 4명은 운반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중국 선원들은 다시 조타실로 들어가 엔진을 다시 켜고 도주하다 2시간15분 뒤인 새벽 4시45분 목포해경 3009함에 나포됐다. 화씨는 “단속원과 중국 선원들이 뒤엉킨 사이 아무도 내가 바다에 빠

진 것을 알지 못했다”며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이렇게 죽는구나 느껴졌다”고 병원에 누워 당시를 회상했다. 구명조끼를 입었지만 당시 수온은 영상 10도 이하, 화씨는 15~20분이나 표류했지만 본선과 고속단정에서 도움을 손길은 없었다. 화씨는 목에 걸고 있던 랜턴이 생각나 흔들었고, 마침 먼저 승선한 단속원들을 지원하

기 위해 본선에서 내려온 또 다른 고속단정에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해머에 머리를 맞은 김씨는 “엔진을 끄자 중국 선원들이 죽기살기로 덤벼들어 깜짝 놀랐다”며 “그들은 말만 어부였지 해적이거나 마한가지였다”고 토로했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변호사 귀책사유 땀

### 착수금 돌려 받는다

법률서비스를 의뢰한 고객에게 일반적으로 불리한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3개 변호사 사무소 약관에서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관할법원을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정한다’ 등이다.

공정위는 소송위임장에 민사소송법상 특별소권사항을 소비자가 선택하지 못하게 미리 포괄 위임하는 불공정약관 계약을 한 다른 1개 변호사 사무소에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일반인은 전문가보다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관행을 이번에 개선함으로써 소송 분쟁이 줄고 법률서비스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와 별도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와 협조해 변호사 약정서에 불공정 약관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자율시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서비스 사업자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소비자상담전화(국번없이 1372)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연희뉴스

### 나원침 (8556) 김종두



### 돌산대교 실종자 숨진채 발견

여수해경은 지난 29일 오후 돌산대교 검문소에서 차량을 두고 연락이 끊겼던 고모(35·여수)씨를 경남 남해군 남면 가천다랭이 마을 앞바다에서 발견, 인양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4일 돌산대교 과적검문소에 승용차만 남긴 채 연락이 끊겨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이날 수산물 채취하던 잠수부가 수중에서 고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고씨가 사업실패로 힘들어했고 지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작별인사를 남겼으며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강시장 측근이 불법 녹취 지시

### 광주지검, 총인비리 관련 최경주씨 사전 영장 청구

광주시 총인저감시설 입찰비리(총인비리) 수사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불법 녹취록의 작성을 강준태 광주시장의 측근이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지난 30일 강준태 광주시장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장을 지냈던 최경주(51) 전 통합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20일 오후 광주시 남구 자문위원 한 식당에서 총인저감시설 공사를 낙찰받은 대림산업 호남지사장 김모(57)씨와 심사위원이었던 광주시청 서기관 반모(58)씨 등의 대화 내용을 불법 녹취

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반씨와 김씨가 이 식당에서 만난다는 정보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금호산업에 1위를 준 광주시 기술직 5급 공무원 박모(55)씨가 제공했으며 박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있던 자신의 부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제 녹취는 최씨가 시장위원장을 맡을 당시 광주시청에서 근무했던 김모(42)씨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씨 등을 최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처럼 강 시장의 측근과 공무원 등이 불법 녹취록 작성, 시민단체 제보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대림산업의 낙찰을 무효처리하고 입찰에서 2위를 차지한 금호산업을 도와주기 위해 불법 녹취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19대 총선 민주당 합당 광주 북구를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바 있다. 검찰은 총인비리 사건과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8명과 심사위원인 대학교수 5명 등 1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업체 임원 및 직원 15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눈 뜨고 당한 귀금속 싸늘이

### 금은방 손님 가장 40대女 탈미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눈뜨고 당한 거죠.” 광주시 동구 충장로 귀금속거리와 일대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주인이 한눈 파는 사이 진열대 사랍을 차지한 금호산업을 도와주기 위해 불법 녹취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19대 총선 민주당 합당 광주 북구를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바 있다. 검찰은 총인비리 사건과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8명과 심사위원인 대학교수 5명 등 1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업체 임원 및 직원 15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TV에 찍힌 모습을 토대로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지난 30일 검거한 범인은 알고보니 절도 등 범죄경력 7범의 김모(여·41)씨. 미혼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는 김씨의 경력은 그야말로 화려했다. 그녀는 2003년 절도를 시작으로 이후 소매치기를 일삼아 교도소 신세를 지기도 했다. 지난 2009년 말 집행유예로 풀려나온 뒤에도 범죄행각은 계속됐다. 최근에는 값이 오른 귀금속을 노렸다. 이를 위해 자신의 장기간 손기술이 큰 도움이 됐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28일 광주시 동구 학동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와 금반지 등 20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총 7회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골프장서 시비 난투극 1명 사망

순천경찰은 지난 30일 골프장에서 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혐의)로 이모(33·강모(33)씨 등 3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전날 오후 7시30분께 순천시 주암면 한 골프장 파우더 룸에서 난투극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강씨의 일행인 김모(33)씨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30일 오후 1시 40분께 숨졌다. 숨진 김씨는 친구 2명과 ‘그늘집’(휴게소에서 술을 마신 후 이씨 등과 시비 끝에 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경찰은 김씨가 지난 28일 광주시 동구 학동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와 금반지 등 20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총 7회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만취 휴학생 귀가 여대생 몸 더듬어

○만취한 20대 휴학생이 귀가중이던 여대생의 몸을 더듬었다가 경찰서행. ○지난 30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휴학생인 홍모(23)씨는 지난 29일 새벽 0시45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여대생 A(19)양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것. ○홍씨는 사건 발생 30여분만에 사건현장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후 “술에 취해서 실수한 것 같다”며 뒤늦은 후회.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이 있어 큰 결핍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적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 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졌던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나 나타내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동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한약으로 만들어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적을 거두고 있다. 평강한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제 090204-중-473호

##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 방수

###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포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미화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